

清朝遺老 王國維 學術의 時宜性 研究*

— 〈《說文》今敍篆文合以古籀說〉을 중심으로 —

李 永 燮**

〈目 次〉

I. 王國維: 清朝遺老와 근대 학 술의 開拓者	IV. 再讀〈《說文》今敍篆文合以古 籀說〉
II. 王國維에 대한 既存의 論議 檢討	1. “今敍篆文, 合以古·籀.”에 대 한 段玉裁의 풀이
III. 《說文解字》와 中國의 近代	2. 段玉裁의 풀이에 대한 修正
	V. 學術과 政治의 교차와 混淆

I. 王國維: 清朝遺老와 근대 學術의 開拓者

中國學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듯이, 王國維는 당초 쇼펜하우어나 칸트 등 서양철학에 대해 穿鑿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후 연구 방향을 文學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考古學이나 文字學 方面 연구에 전력을 기울였는데, 각 분야에서 모두 혁혁한 연구성과를 이루었다. 그중에서도 근대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古文字學에서 그의 성과는 拔群이었던기에, 中國 古文字 研究의 泰斗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특히나 甲骨文 研究에 있어서는 ‘甲骨四堂’¹⁾의 일원으로 칭송될 정도다. 그리고 지금에 이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4-A00156)

**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HK사업단 HK연구교수

1) ‘甲骨四堂’이란 甲骨文 연구에 기틀을 다진 羅振玉(號는 雪堂), 王國維(號는

르기까지 古文字 연구, 특히 甲骨文 研究에 있어서 王國維의 위상은 여전하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王國維의 이러한 연구 성과를, 그의 천부적인 才性和 남다른 부지런함에 의지해 거둔 매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선행 연구 결과로 간주할 뿐, 王國維가 당시 치열하게 견지하려 했던 정치·사회적인 입장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살펴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²⁾ 王國維는 정치·사회적으로 中國의 전통 王朝가 멸망하고 새로운 정치체계가 대두될 때에 즈음하여 淸朝의 합법성을 강조하며 遺老로서의 입장을 견지했다. 때문에 자연스레 — 혹은 부지불식간에 — 그의 학술연구에 이러한 그의 복잡다단한 處境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王國維의 학술성적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연계시켜 다루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³⁾ 가장 중요한 이유는, 淸朝遺老임을 자임하던 王國維의 정치적 성향이 아무래도 현재까지

觀堂), 董作賓(號는 彥堂), 郭沫若(鼎堂), 네 명 모두가 마침 ‘○堂’이란 雅號를 가지고 있기에, 이들 빛을 가리켜 ‘四堂’이라 칭한 것이다.

- 2) 史娟茹의 《王國維的政治思想》(碩士論文, 西北大學, 2004.)을 보면 王國維의 교육과정과 학술사상 및 정치사상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하지만 워낙 초보적인 연구라서 그다지 다각적이거나 심도 있는 분석을 가하지는 못하고, 그저 新儒家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라는 단순한 틀만으로 평면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을 뿐이다.
- 3) 물론 ‘淸朝遺老’의 일원으로 王國維를 포함하여 고찰한 연구성과가 있기는 하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周明之의 《近代中國的文化危機: 淸遺老的精神世界》(山東大學出版社, 2009.)와 林志宏의 《民國乃敵國也: 淸遺民與近代中國政治文化的轉變》(博士論文, 臺灣大學歷史學研究所, 民國94(2005).)이다. (林志宏의 博士論文은 이후 약간의 수정을 거쳐 《民國乃敵國也: 政治文化轉型下的淸遺民》(臺北: 聯經出版社, 2009.)란 이름의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하지만 필자가 실제로 참고한 것은 그의 博士論文이다.)이 있다. 둘 다 王國維에 대한 專著는 아니지만, 淸朝遺老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심도 있는 연구서로서, 淸朝遺老의 문화학술적 성향에 대한 장점을 따로 마련해 다루고 있는데, 두 책 모두 王國維를 비교적 비중 있는 遺老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워낙 큰 논의 속에서 그들의 학술성향을 논하다 보니 그들의 저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예증은 부족하다. 이 외에도 王志可가 主編한 《遜淸遺老的民國歲月》(廣西人民出版社, 2008.) 역시 淸朝遺老에 대한 專著지만 상당히 대중적인 성격이 강해서 엄밀한 학술적 성과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여실히 계승되고 있는 그의 학문적인 성과들의 광채를 가리거나 가치를 폄하시킬까 저어해서일 것이다. 지금의 잣대로 볼 때, 전통적인 학술을 근대적 학술로 탈바꿈시키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운 학자가, 동시에 정치적으로 근대적 이행을 거부하는 ‘反動的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양자를 분리해 학문 쪽만을 강조하면서 정치 쪽은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王國維이다.

필자가 淸朝遺老의 학술성향을 분석하는 端初로 王國維를 꼽은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를 선택한 더 큰 이유는 淸朝遺老들이 남긴 학술연구 성과 중 현재까지도 先驅的인 성과로서의 권위를 유지하면서 확연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王國維의 각종 연구성과(특히 宋元의 戲曲 연구와 文字學 분야)이기 때문이다.

사실 淸朝遺老의 학술적 성과와 정치적 성향을 연계하여 설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간단히 추려보자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淸朝遺老란 개념 자체가 그다지 단일한 개념이 아니다. 林志宏의 《民國乃敵國也：淸遺民與近代中國政治文化的轉變》에 부록된 〈淸遺民基本資料表〉⁴⁾에는 총 327명의 인물이 淸朝遺老로 나열되어 있지만, 이러한 분류가 그들이 동일한 정치적 입장이나 학술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 안에서 너무나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학술적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淸朝遺老 개념 자체가 폭넓은 스펙트럼을 지닐 수밖에 없다. 때문에 淸朝遺老에 대한 접근과 이해는 귀납적으로, 우선 갈래별로 대표적인 인물들의 입장과 성과를 분석하면서 그 大體를 종합해 갈래별로 짐작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한 학자의 학술 성과와 정치적 성향의 연계성은 비교적 쉽게 짐작할 수도 있지만, 그 연결 고리를 발견해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연결고리라는 것이 대부분 개연성을 가질 뿐,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직접적인 언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국 연구대상의 학술성과에 담긴 전체적인 맥락과 궁극적인 지향점

4) 林志宏, 앞의 글, 265-301쪽.

을 파악하고, 다시 그것과 가시적인 정치적 성향과의 교집합을 제시해야만 한다. 이 과정 중에서 보다 명확하게 그 정치적 성향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도 그 학술성과의 영향력이 여전한 경우가 매우 유리하다. 왜냐하면 당초 정치적 성향이나 필요에 의해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받은 학술성과의 경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時宜性을 잃게 되면서 — 본인이 의식했던 의식하지 못했던지 간에 — 당시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강조되거나 왜곡되었던 부분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준에서 보자면 王國維의 宋元의 戲曲 연구와 文字學 연구는, 당시부터 開拓的인 연구성으로 널리 인정받았으며 동시에 아직까지도 그 학술적 권위나 영향력이 尚存한다는 점에서, 淸朝遺老의 학술성과와 정치적 성향의 상호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着手處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王國維의 戲曲과 文字學 중, 먼저 文字學 方면의 연구 성과에 대해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에 王國維의 文字學 관련 저술 중 짧은 편쪽에도 불구하고 時宜性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있는 <<說文>>今敍篆文合以古籀說이란 문장을 골라 이를 기존의 시각과 다른 각도로 다시금 세심히 살펴보면, 그의 정치·사회적 입장이 학술적인 논지와 어떻게 호응하고 어떻게 현현하는 지를 확인하고, 淸朝遺老로서의 時宜的인 요소들을 추출해낼 것이다.⁵⁾ 이는 文字學의 각도에서 王國維의 文字學的 성취를 穿鑿하려는 것이 아니라, 學術史的인 관점에서 王國維의 文字學的 성취와 그의 政治的 성향의 접점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中國 근대 지식인들의 학술적 성과를 좀 더 多元的으로 인식하고 보다 입체적으로 재평가하는 데에 단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통 학술의 위기 속에서 서양학술의 洗禮를 거쳐 보편성과 객관성을 획득했다고 믿어졌던 中國 근대 학술의 연구성과 중 각종 時宜的 요

5) 물론 이러한 시도가, 王國維의 文字學 성과 중 <<說文>>今敍篆文合以古籀說>이 가장 대표적이거나 가장 뛰어난 성과임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필자가 본고에서 이 글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 글이 학술적인 논지전개 과정 중에서 정치적 입장을 포착하기 쉽기 때문이다.

소에 의해 논리가 비약되거나 근거가 왜곡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당연시 되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데에도 一助를 하고자 한다.⁶⁾

II. 王國維에 대한 既存의 論議 檢討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王國維의 文字學 연구 및 이를 근거로 한 古代史 연구는 상당히 강한 時宜性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특히 淸朝가 허무하게 멸망하고 中華民國이 세워지던 극도의 혼란기에 처한 王國維 스스로 정의하고 추구했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周知의 사실로 王國維는 淸朝의 遺老를 자처했고, 끝까지 滿洲族의 상징인 辮髮을 고집했다. 심지어 진작에 退位하여 紫金城에 남아있던 宣統帝의 부름에 흔쾌히 응해 近臣 노릇을 하기도 했다. 1924년 宣統帝가 紫金城에서 쫓겨나자 매우 비통해했고, 결국 1927년 昆明湖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 뜬금없는 王國維의 자살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대여섯 가지의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그의 학문적 업적을 다룰 때에는 이러한 그의 정치적·사회적 성향은 두루뭉술하게 은폐되었다. 아마도 오히려 王國維의 학문적 업적이 누가 된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王國維의 삶과 학술을 동시에 담아 내야하는, 이미 10여종을 넘어선 그의 傳記(혹은 評傳)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그의 삶과 학술이 두 갈래로 나뉘어 기술되었다. 다양하게 나온 그의 傳記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의 드라마틱한 삶과 비극적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淸朝遺老로서의 좌절과 상실감은 나름대로 상세히 기술하면서도,

6) 이러한 맥락의 연구로 필자는 이미 <<中原音韻>>, 曲韻書에서 韻書로 — 錢玄同의 <<中原音韻>> 研究의 意義(<<中國語文學論集>> 第48號, 2008.)란 글에서, 역사적으로 淸代까지만 해도 일개 曲韻書에 불과했던 <<中原音韻>>이 錢玄同과 그의 제자 趙蔭棠의 본격적인 발굴과 연구에 힘입어, 중국 近古音 연구의 중심문헌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과정 중 적지 않은 논리의 비약과 근거의 왜곡이 있었지만, 이는 北方音을 근거로 하는 北京語를 國語로 상정하기 위해 그 역사적 권위와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時宜的인 노력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그의 인생역정과 학술과의 구체적인 상호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조차 없으며, 있다해도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그의 삶과 학술이 분리된 채 기술되고 있는 것이다. 王國維를 바라보는 이 같은 시각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전하다. 필자가 이는 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지적이나 분석을 가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王國維의 時宜的 성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는 國學, 그 중에서도 文字學 연구의 성과와 이를 통한 그의 독특한 역사 재인식(혹은 追體驗)의 경향을 포착해 냄으로써, 王國維 학술 사상 저변에 깔려있는 時宜的 요소의 一端을 辨別해 내려한다. 이러한 辨別은 결코 王國維의 학술적 업적을 폄훼하거나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뒤섞여 있는, 혹은 은폐되어 있는 時宜的 요소를 확실히 인지함으로써, 이로부터 야기된 논리의 비약이나 오류를 지양하고 그의 학술적 업적을 보다 비판적으로 계승하기 위함이다.

王國維보다 약간 후에 본격적으로 甲骨文 연구에 매진해 그 기틀을 다졌던 郭沫若은 자신의 연구성과가 王國維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누차에 걸쳐 인정하면서, 王國維야 말로 甲骨文 연구의 진정한 嚆矢라며 그의 연구성과를 매우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淸朝遺老를 자처하는 王國維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까지 긍정할 수는 없었다. 때문에 1930년에 출판한 《中國古代社會研究》 서문에서 郭沫若은, 王國維가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은 근대적이었으나 사상과 감정은 封建的이었다고 평가했다. 학술적인 연구성과와 정치·사회적 성향을 분리해 버린 것이다. 이러한 郭沫若의 이해는 이후 대륙 학계의 입장을 대변해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韓國, 臺灣, 日本 등 다른 지역에서의 王國維 학술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과도 일치한다. 여기서 그의 정치·사회적 성향을 따로 분리해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蕭艾의 《王國維評傳》(浙江文藝出版社, 1983.)이다.⁷⁾ 蕭艾는 여기서 戊戌變法, 義和團運動, 八國聯合軍의 北京 침공 등 국가존망의 사건들 앞에서 王國維는 눈을 돌렸다고 비

난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王國維는 당시 현실에 열렬히 반응하던 梁啓超와는 달리 그저 世俗의 고민에만 빠져있었고, 그러한 王國維의 작태를 마치 집을 갓 나선 보잘 것 없는 풋내기가 거대한 파도마냥 계속해서 몰아치는 역사의 변화에 너무 놀라 똑바로 쳐다보지조차 못한 꼴에 비유했다.⁸⁾ 물론 대륙이라고 해서 이 같은 비판적인 관점만 견지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의 엄청난 학술적 성과에 기대야하는 한, 최소한 그의 학술업적을 부정하지 못하는 한, 그의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던 삶을 마냥 폄하하고 경시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自家撞着的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王國維의 삶을 적극 변명하고 나선 이가 바로 당초 王國維의 학문방법론과 정치·사회적 성향을 따로 나누어 평가했던 郭沫若이다. 郭沫若은 당초 자신이 제시했던 王國維에 대한 이분법적 이해를 보다 합리화하기 위해, 1946년 발표한 〈魯迅與王國維〉란 글에서 아예 王國維의 遺臣의 행태를 극력 은폐하고 왜곡하려 했다. 郭沫若은 이 글에서 이미 昆明湖에 몸을 던져 자살한 王國維의 死因이 줄곧 망해버린 淸朝를 향한 遺臣의 殉節로 간주되는 것에 반대하면서, 王國維는 단지 정말로 封建의 이었던 僞君子 羅振玉에 의해 핍박당해 죽은 것일 뿐, 결코 淸朝에 대한 殉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⁹⁾ 이로부터 羅振玉의 핍박설이 王國維의 중요한 死因 假說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데, 사실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나마 일리는 있다 해도 아주 객관적인 분석이라기 보단, 王國維의 연구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郭沫若 스스로 자신이 근거하고 있는 선행연구의 장본인을 긍정적인 인물로 설정하기 위한 매우 時宜的인 주장에 가깝다고 보인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封建的이라고 치부되던 그의 정치·사회적 성향이 사실은 羅振玉 같은 僞君子에 의해 강제되었거나 왜곡되어

7) 蕭艾의 이 저작은 비록 분량은 적지만 80년대 대륙 王國維 연구의 대표적인 결과물로 손꼽힌다.

8) 蕭艾, 앞의 책, 22-23쪽.

9) 郭沫若, 〈魯迅과 王國維〉(王國維, 권용호 譯註, 《宋元戲曲史》, 學古房, 2007.) 544-549쪽 참고.

잘못 알려진 것이 되면서 그에게 씌워졌던 封建的이란 족쇄가 풀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남아있는 관련 史料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러한 郭沫若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려웠기에, 王國維의 학문적 성취와 정치적 성향을 이분화해서 이해하는 접근이 보다 보편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王國維에 대한 본격적인 재인식은 1990년대부터 흥기하여 21세기 들어 본격화된 중국의 근대학술의 재조명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王國維의 모든 학술성고가 재조명 받게 되면서, 王國維의 정치적인 정체성 역시 재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앞서 지적했던 蕭艾의 부당한 비난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반박이 나오기 시작한다.¹⁰⁾ 이 같은 반박은 당연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王國維의 清朝遺臣으로서의 삶과 그의 학술업적이 어떻게 상호 교섭하고 어떤 역학구조를 이루는 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아직도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물론 이 외에도 아주 유력한 관점이 하나 제기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王國維의 보수적 행태를 清朝나 滿洲族에 대한 정치적인 추종이 아닌, 전통문화 자체에 대한 애착으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당초 陳寅恪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는데¹¹⁾, 실제로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논조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王國維는 反動的인 清朝遺老가 아닌, 전통문화를 死守한 ‘文化遺民’으로 간주된다.¹²⁾

국내 王國維 연구에 있어서는, 최우선적으로 류창교의 《왕국유평전》(영남대학출판부, 2005.)을 꼽을 수 있겠다. 이는 王國維에 대한 국내 최초 評傳인데, 중국과 서양의 연구결과를 충분히 흡수해 잘 소화했기에 王國

10) 대표적인 예가 張連科의 《王國維與羅振玉》(天津人民出版社, 2002.) 32-34쪽에 보인다.

11) 이 같은 주장은 陳寅恪의 〈王觀堂先生挽詞序〉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陳美延·陳流求 編, 《陳寅恪詩集·唐筭詩存》, 清華大學出版社, 1993.) 10-11쪽.

12) 文化遺民으로서의 王國維에 대한 簡명한 설명은 彭玉平的 〈王國維·陳寅恪文化遺民心態辨析〉(《廣州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10卷 第1期, 2011.) 참고. 彭玉平은 이 글에서 王國維와 陳寅恪을 당시 대표적인 文化遺民으로 손꼽으면서도, 清朝에 대한 두 학자의 입장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維 연구의 입문서로 삼을만하다. 석박사학위논문의 주체가 모두 王國維文學이었던 王國維 연구전문가답게, 저자는 王國維의 삶을 조리 있고 간결하게 기술하면서도, 그의 문학과 학술까지도 잘 정리해 내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의 삶과 학술의 유기적 역학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처럼 별다른 의식이나 記述은 결여되어 있다. 이 외에도 상당히 드물긴 하지만 王國維의 생애와 정치적·학문적 역정을 다룬 국내 연구논문도 있다. 金鍾賢의 〈왕국유의 현실인식 — 그 일생의 주객체적 조건을 중심으로〉(《中國人文科學》 第5輯, 1986.)는 국내 최초로 王國維의 사유와 급변하던 현실의 錯綜을 다룬 논문이다. 王國維의 삶을 객체적인 역사상황과 주체적인 자기 관념으로 양분하여 살펴본 뒤, 이 두 갈래의 호응관계를 다루었다. 하지만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대륙의 기존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결국 “역사적 흐름위에 놓여진 왕국유에게서 우리는 그의 반역사적 사고와 행위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은 유가적 보수주의와 비판주의에서 기인된 것이기도 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당시 중국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결론짓는다.¹³⁾ 이러한 관점과 記述은 20세기말부터 대륙에서 본격적으로 中國 近代學者들을 재발굴하게 되면서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時流에 역행하는, 아주 封建的이고 守舊的인 학자가 어떻게 암울했던 近代에 傳統과 新學問 사이에서 표류하던 중국 학술의 틀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혁신을 시도할 수 있었는가?” 혹은 “삶과 학술이 완전한 별개의 문제인가?” 등의 질문에 대해 기존의 관점은 더 이상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¹⁴⁾ 이러한 王國維의 삶과 학술업적에 적용되는 이 증적 잣대에 의문을 품고 그의 삶과 知的 역정을 살핀 것이 바로 吳相勳의 〈王國維小考 — 그의 知的역정과 종말〉(《釜山史學》 제30집, 2006.)이다. 하지만 이 논문은 날카로운 문제제기와는 달리 전체 내용은 王國維

13) 金鍾賢, 앞의 글, 214쪽.

14) 앞서 언급한 王國維에 대한 蕭艾의 당초 비난과 이후 이에 대해 제기된 張連科의 반박이 이런 대륙 학계의 전후 입장 변화를 대변해 준다.

의 삶과 학술에 대한 간결한 정리로 그치고 말았기에 아쉬움을 준다. 여기에 또 하나 눈여겨 볼만한 별도의 연구를 덧붙이자면 李康範의 〈王國維의 죽음으로 본 陳寅恪의 “文化本位論”〉(《中國語文學論集》 第24號, 2003.) 이 있다. 사실 이 논문은 王國維에 대한 연구논문이 아니다. 제목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王國維의 죽음은 단지 논의의 발단으로 삼고 있을 뿐이고, 실제론 陳寅恪의 文化本位論을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이 논문에 주목하는 이유는 중국 근대 지식인의 삶과 학술을 보다 밀접하게 연계시키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연구대상은 약간 다르지만, 문제의식이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많은 계발을 받았다.

이 외의 연구성과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국내의 王國維 학술 연구는 거의가 文學에 치중되어 있으며, 王國維의 文字學을 전문적으로 다룬 논문도 드문 편이다.¹⁵⁾ 그런데 저작만 놓고 본다면 王國維의 文字學을 전문적으로 다룬 연구가 드문 상황은 中國이나 日本 역시 韓國과 大同小異하다. 中國 文字學, 특히 古文字學 연구에 있어서 泰斗로 추앙받는 王國維의 文字學 연구가 이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이는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錯視 현상일 뿐이다. 우선 王國維의 文字學 관련(특히 甲骨文 등 古文字 관련) 연구성과는 거의가 短篇들로 《觀堂集林》에 수록되어 있기에, 대부분 부분적으로 인용이 될 뿐, 하나의 큰 논문 주제로 다루이지 않았다. 둘째로 王國維의 文字學 연구는 궁극적으로 중국 古代史의 재해석을 위한 것이었기에, 중국의 古代史 연구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 근거로 제공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이나 중국의 중국 古代史 혹은 古文字 관련 논문들을 살펴본다면 《觀

15)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학위논문 3편뿐이다. ① 김정옥, 《王國維研究: 古文字學·考釋을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明知大學校, 1994. ② 김자영, 《王國維〈聯綿字譜〉研究: 韓國語 聯綿字의 용례를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建國大學校, 2009. ③ 金瑩淵, 《〈說文解字〉重文 研究》, 博士學位論文, 漢陽大學校, 2009. 이 중에서 특히 ③은 주목할 만하다. 이 논문은 《說文解字》의 重文에 대한 국내 연구의 총결이라고 할 만하고, 《說文解字》중 重文이 있는 조항을 모두 번역해 놓고 설명까지 가하고 있다.

堂集林》 등에 담긴 王國維의 文字學 주장들이 곧잘 인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王國維의 文字學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專著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의 연구성과는 中國 古代史나 文字學 관련 연구에서 줄곧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와중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王國維의 文字學 연구성과 중 유독 古文字 연구의 성과에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에, 본고에서 다루려는 <《說文》今敍篆文合以古籀說>에 대한 심도 있는 개별적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¹⁶⁾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그의 삶과 학술의 교섭, 그리고 그 안에서 발현하는 時宜性이긴 하지만, <《說文》今敍篆文合以古籀說>을 통해 이러한 분석을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文字學 — 그 중에서도 <《說文解字》> — 의 기존 연구성과에 근거해야 한다. 필자가 <《說文解字》>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가장 도움을 준 책은 아쓰지 데쓰지(阿辻哲次)의 <《漢字學 — 《說文解字》의 세계》(沈慶昊 옮김, 이회문화사, 1996.)이다.¹⁷⁾

16) 그래도 반가운 것은 국내에 <《觀堂集林》>에 실린 몇 편의 문장들이 抄譯되었다는 점이다.(왕귀웨이, 하영삼 옮김, <《觀堂集林》>, 지식음만드는지식, 2012.) 총15편의 문장이 번역되었는데, 뜻밖에도 본고의 연구대상인 <《說文》今敍篆文合以古籀說>도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이미 필자 역시 개인적으로 <《說文》今敍篆文合以古籀說>을 완역해두고 있었으나, 두 번역문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번역을 가다듬을 기회를 얻었다.

17) 부연하자면, 일반적으로 <《說文解字》>의 종합적인 연구서로는 江舉謙의 <《說文解字綜合研究》>(東海大學, 民國59(1970))을 손꼽는다. 나온 지는 오래되었지만 1970년 初版이 간행된 이래로 80년대 까지도 重版을 거듭할 만큼 경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연구서이다. 이 외에도 본고와 직접 관련된 <《說文解字》>의 重文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서로는, 王平의 <《《說文》重文研究》>(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8.)와 앞서 언급했던 金塗淵의 博士論文이 있다. 전자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두루 종합해 갈래별로 간명하게 정리하고 있고, 후자는 重文 관련 <《說文解字》>의 자료를 모두 번역해 놓고 있어서, 합쳐놓고 본다면 <《說文解字》>의 重文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매우 편리하다.

Ⅲ. 《說文解字》와 中國의 近代

王國維의 〈《說文》今敍篆文合以古籀說〉(1916)¹⁸⁾은 제목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이는 《說文解字》에 대한 論文으로,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說文解字》의 〈敍〉에 나오는 “이제 小篆을 나열하며 古文과 籀文을 합쳐두었다”(今敍篆文, 合以古·籀.)라는 여덟 글자에 대한 논의이다. 이 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학술에서 《說文解字》가 갖는 지위가 어떤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周知의 사실로 《說文解字》는 後漢시기 許慎(?58~?147)이 지은 字典이다. 당초 秦始皇이 六國을 통일(B.C. 221)하고 난 뒤 각종 제도, 도량형, 車軌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면서 文字 역시 통일시켰다. 이는 당시의 승상이던 李斯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秦나라에서 이전부터 사용하던 大篆을 改良하여 小篆이라는 서체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자 통일 작업의 후속조치로 小篆으로 쓰여진 識字敎本(李斯의 《蒼頡篇》·趙高的《爰歷篇》·胡毋敬의 《博學篇》)이 만들어졌다. 漢代 들어서도 武帝 때 司馬相如의 《凡將篇》, 元帝 때 史游의 《急就篇》, 成帝 때 李長의 《元尚篇》, 王莽이 攝政할 때 揚雄의 《訓纂篇》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책들은 모두가 識字敎本이었다. 後漢 때 나온 《說文解字》는 이와 달리 본격적으로 漢字의 字形을 최초로 분석한 책으로, 현재까지도 中國 文字學의 着手處로 不動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古文字學으로 구분되는 戰國時代 各國 文字, 金文, 甲骨文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來源을 탐색하려해도 그 출발은 《說文解字》이고, 隸書, 草書, 楷書, 行書로의 변천과정을 따져 보려 해도 그 출발은 《說文解字》이다. 《說文解字》야말로 漢字에 대한 본격적인 字形 분석의 鼻祖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초 《說文解字》의 등장이 漢代의 학술논쟁, 즉 今古

18) 이 제목을 우리말로 풀자면 “《說文解字·敍》의 ‘이제 小篆을 나열하며 古文과 籀文을 합쳐두었다’는 구절에 대한 해설”이다.

文經學과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說文解字》는 단순한 字典이 아니라, 당시까지 不動의 主流를 차지하고 있던 今文學派, 즉 周秦時期에 口傳되다가 漢代에 隸書로 기록된 經書에 근거한 學派의 주장에 반박을 가하고, 자신이 속한 古文學派, 즉 孔壁 등에서 나온 秦代 이전의 옛 書體로 쓰여진 經書에 근거한 學派의 주장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說文解字》는, 隸書로 쓰인 今文學派의 經書 해석 오류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을 통해 今文學派의 經學觀을 해체하고, 그 이전의 書體인 小篆을 위주로 하면서 籀文(즉 大篆)과 六國古文까지 두루 섭렵해 古文學派 經書 文字 해석의 권위와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이다.¹⁹⁾ 東漢末葉 鄭玄이 古文經學을 중심으로 모든 經書의 註釋을 정리하면서, 학술적 주도권은 완전히 古文經學에 넘어오게 되고, 《說文解字》 역시 중국 전통 학술의 頂點인 經學에서 보다 확고한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20세기 초엽이 되자 중국은 甲骨文이나 殷墟 발굴 등 연이은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인해 古文字學에 획기적인 발전 계기를 마련했고, 劉鶚(《鐵雲藏龜》), 孫詒讓(《契文舉例》 등)의 초보적인 자료 정리와 분석 위에서 羅振玉(《殷虛書契前編》, 《殷虛書契菁華》, 《鐵雲藏龜之餘》, 《殷虛書契後編》 등)과 王國維(《觀堂集林》)의 노력으로 보다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자학상의 새로운 돌파구는 전혀 뜻밖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說文解字》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漢代 經學의 성립 자체가 武帝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中華中心主義的인 국가이데올로기의 성립의 일환이었고, 이후로 經學은 정치와 학술 상 지식의 계급을 나타내는 중국의 도서분류에 있어서 — 그것이 《七

19) 이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는 아쓰지 데쓰지(阿辻哲次)의 《漢字學 — 《설문해자》의 세계》(심경호 옮김, 보고사, 2008.) 중 <<설문해자>의 배경 — 허신과 그의 시대>, <<설문해자> — 문자의 체계화와 그 수법>, <문자해석의 기반 — 小篆>, 이 세 장을 참고.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김근의 《한자는 중국을 어떻게 지배했는가》(민음사, 1999.) 중 <제2장 한대 경학의 훈고담론>의 <제3절 탈신화의 결실: 설문해자> 참고.

略》의 6分法(六藝略, 諸子略, 詩賦略, 兵書略, 數術略, 方技略)²⁰⁾이든 魏晉시기 이후 점차 보편화된 4分法(經, 史, 子, 集)이든 상관없이 — 清代에 이르기까지 늘 그 정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清代 中葉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今文學派는, 清代 考證學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던 古文經學의 권위와 당위성에 도전하기 시작했고, 결국 清末에 이르러서 漢代때와는 또 다른 今古文經學 論爭을 촉발시켰다. 당시 今文學派는 崔適, 康有爲, 梁啓超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고(《古史辨》으로 대변되는 疑古派는 거의 모두 今文學派的인 성향이 짙었다.), 이에 대한 古文經學派의 반발로는, 古文經學을 중심으로 중국 학술 전반을 새로이 구축한 章炳麟, 즉 章太炎이 선봉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章太炎은 甲骨文 등의 발견으로 위협받게 된 《說文解字》의 학술적 권위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²¹⁾ 章太炎이 보기에, 새로 발견된 甲骨文의 연구 성과와 이에 따른 金文 연구의 심화는 모두가 《說文解字》가 근거하고 있는 經書 解釋 권위에 균열을 가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책동이었다. 그는 《國故論衡》(1910)에 따

20) 《七略》은 진작 佚失되었지만 《漢書》〈藝文志〉가 그 체계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간주되기에 이를 근거했다.

21) 《說文解字》와 小篆에 대한 章太炎의 사랑은 각별했다. 日本 망명 시절에도 열정을 가지고 진행했던 것이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說文解字》강의(1908년 4월~9월)였고, 자신의 저작 《小學答問》은 아예 제자 錢玄同이 全文을 小篆으로 쓴 것을 정식으로 간행했을 정도다.(錢玄同은 古文經學家인 章太炎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今文學派인 崔適의 제자이기도 하다. 이후 그는 今文學派를 근거로 한 疑古派에 투신하며 章太炎과는 완전히 대립하게 된다.) 전자의 성과는 당시 청강생이었던 錢玄同, 朱希祖, 周樹人(즉 魯迅)의 筆記를 취합·정리한 《章太炎說文解字授課筆記》(中華書局, 2010.)에 보인다.(강의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휴식시간도 없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章太炎이 자신의 세 딸 이름을 차례대로 ‘𠄎’(리: 𠄎), ‘𠄎’(철: 𠄎), ‘𠄎’(전: 𠄎)이라고 지은 것 역시 그가 얼마나 《說文解字》를 중시했는지에 대한 傍證이 된다. 왜냐하면 얼핏 보면 ‘𠄎’, ‘𠄎’, ‘𠄎’ 모두 그냥 같은 글자 네 개를 모은 僻字로 보이지만, 사실은 네 글자 모두 小篆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說文解字》의 540部首에 포함되는 제부수 글자들이기 때문이다.

로 〈理惑論〉篇을 지어 극력 甲骨文과 金文의 가치를 배척했는데, 그가 甲骨文과 金文을 배척한 이유와 내용을 董作賓은 이렇게 簡明하게 요약했다.

章太炎의 小學에 대한 조예가 매우 深厚했는데, 《說文解字》를 金科玉條로 받들었기에, 金文과 甲骨文으로 《說文解字》의 오류를 정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金文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으며……甲骨文에 대해서는 단연코 날조된 것이라며 배척했다. 그는 그 증거로 우선 甲骨文을 유행시킨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그가 보기에 甲骨文을 유행시킨 羅振玉은 ‘올바르고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龜甲에 칼로 글자를 세기는 일에 대한 언급이 經書나 史書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龜甲은 ‘금새 썩는 물건’이라 오래도록 보존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龜甲의 글자는 위조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章氏小學功深, 奉《說文》爲金科玉律, 不容以鍾鼎甲骨, 訂正《說文》之訛誤. 對於金文是疑信參半……對於龜文卻斷然斥爲僞作. 他的證據: 第一是流傳之人不可信, 因爲羅振玉‘非貞信之人’. 第二是龜甲刻文不見於經史. 第三是龜甲乃速朽之物, 不能長久. 第四是龜甲文容易作僞.²²⁾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사실 궁극적인 이유는 董作賓의 지적처럼 章太炎이 “《說文解字》를 金科玉條로 받들었기에”, 애당초 “金文과 甲骨文으로 《說文解字》의 오류를 정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章太炎이 《國故論衡》卷上 〈小學略說〉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22) 《甲骨學六十年》(劉夢溪 主編, 《中國現代學術經典 — 董作賓卷》, 河北教育出版社, 1996.) 195쪽. 그리고 이러한 章太炎의 입장에 대해 편지로 학술적인 論難을 펼친 金祖同에게 章太炎이 보낸 마지막 답장에는 이런 내용이 보인다. “龜甲의 진위를 따지지 않고, 龜甲을 진짜라고 친다 하더라도, 적힌 거라곤 占卜의 말뿐이라, 그저 날씨가 개일지 비가 올지 묻거나 사냥의 길흉 여부를 묻는 등 자질구래한 일들에 불과한데, 商나라 역사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또 周代의 青銅器는 남아있는 것이 100여점이나 되지만 그 중 周나라 역사에 보탬이 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龜甲且勿論眞僞. 卽是真物, 所著占繇, 不過晴雨弋獲諸瑣事, 何足以補商史? 且如周代彝器存者百數, 其可以補周史者甚少也.) 《甲骨學六十年》(劉夢溪 主編, 앞의 책.) 198쪽. 이런 章太炎의 답변에는 이미 심본 궁색함이 묻어난다.

보면 그 이유가 짐작이 간다.

대개 小學이란 나라의 고유한 문화의 根本이요 王道敎化의 端緒이며, 위로는 先代의 典籍을 미루어 살피고 아래로는 百姓과 風俗을 마땅하고 편안케 하는 것이니, 어찌 그저 붓을 잡고 筆劃이나 늘어뜨리면서 文字에 얽매이는 것이겠는가?

蓋小學者, 國故之本, 王教之端, 上以推校先典, 下以宜民便俗, 豈專引筆畫篆, 繚繞文字而已?²³⁾

중국 전통학술에 있어서 小學, 즉 文字學, 聲韻學, 訓詁學은 단순히 문헌을 읽기 위한 언어학 분야의 기초지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한 나라의 고유한 문화의 뿌리이며 진정한 정치를 시행하기 위한 始原이다. 이 같은 章太炎의 주장은 사실 《說文解字》〈敍〉의 “대개 文字란 經學六藝의 根本이요, 王道政治의 시작이다. 前人들은 이에 의지해 後世에 가르침을 남기고, 後世 사람들은 이에 의지해 옛 것을 알게 된다.”(蓋文字者, 經藝之本, 王政之始. 前人所以垂後, 後人所以識古.)란 표현을 본 딴 것이다. 중국 전통학술에 있어서 小學은 經學을 體得하기 위한 기초이며 經學은 세상을 經綸하기 위한 바탕이다. 중국 전통 도서 분류에 있어서 小學이 經部에 속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小學은 중국 전통학술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經學을 떠받치고 있는 토대인 것이다. 이 점은 王國維 역시 기꺼이 동의하는 바였다. 단적인 증거로, 그는 제자 趙萬里가 학문하는 방법을 묻자, “먼저 《說文解字》에 통달한 뒤에, 《詩》, 《尚書》, 《周禮》, 《儀禮》, 《禮記》를 연구하라”(治學必先通《說文》, 而後再治《詩》·《書》·三禮.)고 당부했다.²⁴⁾

그런데 章太炎은 여기서 더 나아가 중국 전통학술 중 經學을 중국 문화의 근원으로 간주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至高의 권위를 부여한다.²⁵⁾ 그

23) 章太炎, 龐俊·郭誠永 疏證, 《國故論衡疏證》(中華書局, 2008.) 20쪽.

24) 趙萬里, 《王靜安先生國維年譜》(臺灣商務印書館, 民國67(1978).), 44쪽.(癸亥(1923年: 民國12年) 四十七歲條)

래서 그에게 經學이란 中國이란 존재 가치를 증명해주는 歷史이며 실존 그 자체다. 이는 經書 중 서양학술의 의미에서 철학적 함의가 많다고 인정되던 《周易》을 십분 활용해 새로운 철학사유체계를 만들어 내려고 했던 現代新儒家의 학자들과 완전히 상반되는 자세이다.²⁶⁾ 章太炎은 밀려들어오는 西歐의 사상에 대항하기 위해 諸子書인 《莊子》와 唯識學을 적극 활용할 뿐 經書 자체의 내용을 가져다 함부로 재단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술 성향의 章太炎의 정치적 입장은 어떠했는가? 周知的 사실로 그는 古文經學을 근거로 전통적인 華夷論에 서양에서 들어온 民族主義와 人種學 등을 혼합하여, 보다 강력한 排滿運動의 논리를 만들어 냈다.²⁷⁾ 중국 전통학술을 적극적으로 變容하여 西歐의 학술의 대항담론을 구축해낸 章太炎의 학술은 당시 지식인들로부터 매우 큰 호응을 받았으며, 특히 음성중심주의의 서구 언어학에 대항하기 위해 清代 ‘因聲求義’ 전통²⁸⁾을 적극 확충한 그의 小學 연구성과는 매우 인기가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甲骨文 연구의 선봉장이었던 王國維는 《說文解字》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가?

- 25) 章太炎은 章學誠의 “六經은 모두 史書다.”(六經皆史)라는 주장을 인용해 史學의 범주로 經書의 성격을 규정한다. 〈經的意義〉에서는 아예 “經書는 모두 옛 史書”라고까지 주장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당초 章學誠의 주장은 明代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經書의 권위를 해체하려는 전통으로부터 연유한 것인데, 章太炎은 이를 인용해 정반대, 즉 경학의 내용을 역사적으로 실존했으며 절대 바뀔 수 없는 일종의 도그마로 상정하는 논조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章太炎, 《章太炎의白話文》(泰東圖書局, 民國16(1927).) 69-73쪽 참고.
- 26) 熊十力, 牟宗三, 唐君毅, 方東美, 馮友蘭 등이 모두 이러한 범주에 들어간다. 이들은 따로 《周易》에 대한 專著를 내거나, 著述이나 講演에 적극적으로 《周易》의 哲理를 인용하는 방식을 통해, 서양철학에 뒤지지 않는 新儒家哲學만의 形而上學的인 열개를 구축하려 노력했다.
- 27)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吳喆淑의 《章炳麟의 政治思想 - 民族主義를 中心으로》(博士學位論文, 忠南大學校, 2005.) 중 제3장 〈民族主義의 形成과 發展〉을 참고.
- 28) ‘因聲求義’에 대한 개괄적이면서 통시적인 설명은 陳偉, 〈因聲求義之歷史沿革及其推闡〉(《四川教育學院學報》, 第27卷 第10期, 2011.) 참고.

IV. 再讀〈《說文》今敍篆文合以古籀說〉

1916년 王國維는 同鄉 사람인 鄒安의 초대를 받아 日本에서의 생활을 접고 上海로 와서는, 英國 국적의 유대인이자 上海 부동산의 큰 손이던 사일러스 하돈(Silas Aaron Haroon: 1851~1931)이 세운 출판사 廣倉學齋에서 《學術叢編》 편집장을 맡고, 하돈이 설립한 倉聖明智大學의 教授職을 맡았다.²⁹⁾ 그는 《學術叢編》의 편집을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學術叢編》을 통해 많은 저작을 지었는데, 그 중에 《漢代古文考》(1916)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책에는 총 9편의 글이 실려 있었는데³⁰⁾, 이 글들은 이후 《觀堂集林》卷七의 〈藝林〉七에 그대로 수록되었다.³¹⁾ 이 글들은 書名이나 篇名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漢代의 이른바 ‘古文’이란 淵源에 대한 考證이고, 전반적으로 “《史籀篇疏證》으로부터 《魏石經考》을 거쳐 파생되어 나온 것”이며 “극단적인 疑古派와 信古派 학자들을 겨냥해 나온 것”이다.³²⁾ 〈《說文》今敍篆文合以古籀說〉은 바로 이 글들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서 ‘信古派 학자’란 앞서 언급한 章太炎을 가리키는 것일텐데, 그렇다면 ‘疑古派 학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기본적으로는 古文經學을 공격하던 今文經學과 이로부터 淵源한 《古史辨》學派까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의 구체적인 例證은 《漢代古文考》가 나온지 10년이 흐른 뒤에 보인다. 1926년 錢玄同은 顧頡剛에게

29) 이에 대한 간략한 曲折은 류창교, 앞의 책, 264-269쪽 참고.

30) 당초 《漢代古文考》에 수록된 문장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戰國時秦用籀文六國用古文說〉, ② 〈《史記》所用古文說〉, ③ 〈《漢書》所用古文說〉, ④ 〈《說文》所用古文說〉, ⑤ 〈《說文》今敍篆文合以古籀說〉, ⑥ 〈漢時古文本諸經傳考〉, ⑦ 〈漢時古文諸經有轉寫本說〉, ⑧ 〈兩漢古文學家多小學家說〉, ⑨ 〈科斗文字說〉.

31) 몇 편의 제목만 약간 수정되었다. 〈《史記》所用古文說〉은 〈《史記》所謂古文說〉로, 〈《漢書》所用古文說〉은 〈《漢書》所謂古文說〉로, 〈《說文》所用古文說〉은 〈《說文》所謂古文說〉로 바뀌었다.

32) 洪國樑, 《王國維著述編年提要》(大安出版社, 民國78(1989).) 55쪽.

편지를 보냈는데³³⁾, 그는 이 편지에서 《說文解字》의 古文이 殷周古文과 너무 차이가 나 전혀 닮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今文經學家의 입장을 완고하게 견지하며 古文의 계보를 인정하고 추적했던 王國維의 고증을 황당무계한 억측이라 공격했다. 한마디로 《說文解字》의 古文은 아예 劉歆의 날조라고 보았다. 이 편지를 본 王國維는 바로 容庚에게 보낸 편지를 보내 자신이 말한 古文은 戰國時代 六國古文인데, 錢玄同이 자신을 비판하며 상정한 古文은 春秋時代의 古文이라서, 양자의 주장은 논거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은 결코 《說文解字》의 古文을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역시 강조했다.³⁴⁾ 이러한 상황을 두루 감안해 보면, 王國維의 《漢代古文考》에서 考證한 中國의 歷代 ‘古文’ 變遷 과정은, 《說文解字》를 근거로 하는 古文經學派 및 그 후예라 할 수 있는 信古派와 《說文解字》에 猛攻을 퍼붓던 今文經學派 및 그 후예라 할 수 있는 疑古派 모두에게 배척받았다는 사실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王國維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說文解字》의 古文에 접근하고, 또 어떤 결론을 도출한 것일까?

1. “今敘篆文，合以古籀。”에 대한 段玉裁의 풀이

〈《說文》今敘篆文合以古籀說〉의 문제제기는 《說文解字》〈敘〉의 8字에 대한 段玉裁의 풀이로부터 비롯된다.

許慎의 《說文解字》〈敘〉에 보면 “이제 小篆을 나열하며 古文과 籀문을 합쳐두었다”고 한 구절에 대하여 段玉裁는 아래와 같이 注를 달았다.
“小篆엔 古文·籀문을 因襲하며 변치 않은 글자가 많았다……그 중에 古文·

33) 여기서 ‘錢玄同이 顧頡剛에게 보낸 편지’란 顧頡剛이 編한 《古史辨》 第1冊 (上海古籍出版社, 1982.) 下編에 실린 〈論《說文》及壁中古文經書〉를 가리킨다.(이 글에서 錢玄同은 ‘疑古玄同’이란 筆名을 사용했다.)

34) 〈致容庚〉(劉寅生·袁英光 編, 《王國維全集·書信》, 中華書局, 1984.) 436-438 쪽.

籀文으로부터 이미 고쳐진 小篆이 있었다. 小篆과 다른 古文·籀文이 있으면, 그 古文·籀文을 小篆의 뒤에 덧붙여 두면서 “古文으로는 □라고 쓴다”든지 “籀文으로는 □라고 쓴다”고 해두었다. 이것은 《說文解字》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체례’(通例)이다. ‘예외적인 체례’(變例)로는 먼저 古文이나 籀文을 놓고 뒤에 小篆을 붙인 경우가 있다.” 또 “모두 ‘太史籀의 大篆’을 취한 것인데 아마도 약간이나마 생략하거나 고쳤을 것”³⁵⁾라는 구절에는 이렇게 注를 달았다. “許慎이 나열한 小篆은 본래 모두 太史籀의 大篆이다. 《說文解字》에서 ‘古文으로는 □라고 쓴다’라든지 ‘籀文으로는 □라고 쓴다’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는 古文·籀文이 小篆과 같았기 때문이다. 《說文解字》에서 먼저 小篆을 正字로 내어놓고 다시 ‘古文으로는 □라고 쓴다’든지 ‘籀文으로는 □라고 쓴다’고 한 것은 “아마도 약간이나마 생략하거나 고친” 부분을 말한 것이다.”³⁶⁾ 段玉裁의 이 몇 마디 말들은 가히 千古의 卓見이라 할만하다. 2000여 년간 《說文解字》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 이렇게 분명하고도 환히 꿰뚫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는 없었다. 그렇긴 하지만 段玉裁가 든 이 두 가지 體例 역시 여전히 《說文解字》를 완전히 통괄하기에는 부족하다.

許君《說文·敘》云：“今敘篆文，合以古·籀。”段君玉裁注之曰：“小篆因古·籀而不變者多……其有小篆已改古·籀，古·籀異於小篆者，則以古·籀附小篆之後，曰：‘古文作某，籀文作某。’此全書之通例也。其變例則先古·籀後小篆。”又於“皆取史籀大篆，或頗省改”下注曰：“許所列小篆，固皆古文大篆。其不云‘古文作某，籀文作某’者，古·籀同於小篆也。其既出小篆，又云‘古文作某，籀文作某’，則所謂‘或頗省改’者也。”此數語可謂千古卓識。二千年來治《說文》者，未有能言之，明白曉暢如是者也。雖然，段君所舉二例，猶未足以盡

35) 王國維는 《史籀篇疏證》〈叙錄〉에서 이 구절 중 虛詞인 ‘或’와 ‘頗’가 나타내는 어감에 주목해서, “‘或’은 미심쩍다는 것이고, ‘頗’는 적다는 것이다。”(或之者，疑之，頗之者，少之也)라고 풀었다.(王國維，謝維揚·房鑫亮 主編，《王國維全集》第5卷(浙江教育出版社·廣東教育出版社，2010.) 6쪽.) 이에 王國維의 이러한 풀이를 최대한 살려서 번역했다. 사실 王國維가 이렇게 사소한 표현(특히 ‘적다’는 의미의 ‘頗’)에 주목한 이유는 《史籀篇》은 총 15篇의 비교적 긴 篇幅이었기에 응당 수천자의 글자가 실려 있었을 텐데, 《說文解字》에는 220여자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220여자 말고는 《史籀篇》의 글자가 大篆과 같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36) 여기까지 《說文解字注》의 인용문들은 許慎，段玉裁 注，許惟賢 整理，《說文解字注》(鳳凰出版社，2007.) 1321쪽에 보인다.

《說文》.37)

현재까지도 《說文解字》의 字形 설명 體例에 대해서는, 段玉裁의 이러한 분석을 두루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王國維는 이러한 段玉裁의 주장이 卓見임을 인정하면서도 교묘한 變奏를 시도한다.

2. 段玉裁의 풀이에 대한 修正

段玉裁의 풀이처럼 小篆을 正字로 하고 古文·籀文가 附錄되는 것이 《說文解字》의 기본 體例로 현재까지 학계에 공인되는 바이다. 하지만 이러한 段玉裁의 풀이에 대해 王國維는 修正을 시도한다.

나는 어째서 段玉裁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는가? 왜냐하면 이러한 段玉裁의 설명은 반드시 古文·籀文의 모든 글자들이 小篆에도 다 존재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小篆이란 秦나라가 天下를 병합한 뒤 제정한 문자이다. 秦나라의 政治文化는 모두 스스로의 것을 沿用했지, 남의 것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의 것을 위주로 했지, 옛 것을 본받지 않았다. 秦나라가 籀文을 小篆으로 바꾼 것은 비단 생략하거나 고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겨두거나 아예 없애버린 것도 있었다. 무릇 夏·殷·周 三代之 文物制度에 대한 글자들 중, 단지 六經에만 보일 뿐 秦나라 때에 이미 없어져버린 글자들은, 李斯 등의 무리가 小篆을 만들면서 분명 취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날 ‘蒼頡 3篇’³⁸⁾이 비록 亡佚되었음에도 불구하고, 蒼頡 3篇에 실린 글자와 그 體例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 볼 수 있는

37) 王國維, 《觀堂集林》卷7〈藝林〉7(王國維, 謝維揚·房鑫亮 主編, 《王國維全集》第8卷, 浙江教育出版社·廣東教育出版社, 2010.) 205쪽.

38) 李斯의 《蒼頡篇》·趙高的《爰歷篇》·胡毋敬의 《博學篇》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이를 ‘三蒼’이라 한다. 후자는 李斯의 《蒼頡篇》·揚雄의 《訓纂篇》·賈勳의 《滂喜篇》을 ‘三蒼’으로 꼽기도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아래 본문에서 “蒼頡 3篇은……모두 3,300자가 된다……揚雄의 《訓纂篇》까지 합한다 해도 단지 5,340자뿐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 ‘蒼頡 3篇’에 揚雄의 《訓纂篇》이 포함되지 않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것은 《急就篇》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急就篇》의 글자들은 모두가 蒼頡 3篇의 正字이다. 그 체례를 보자면, 먼저 姓名, 그 다음은 여러 事物들, 그리고 여러 官職들이니, 이 모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필수적인 글자들이었을 뿐, 六經의 글자들 중 열의 너댓은 《急就篇》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小篆은 애당초 古文·籀文에 있는 글자까지 모두 갖추고 있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蒼頡 3篇은 총 55章으로 매 章마다 60字로 되어 있어서 이를 합친다면 모두 3,300자가 된다. 여기엔 겹치는 글자도 있는데다가, 揚雄의 《訓纂篇》까지 합한다 해도 그저 5,340字일뿐이다. 그런데 《說文解字》의 正字는 9,353字이니, 그럼 나머지 4,000餘字는 許慎이 어디서 구해왔단 말인가? 내 가로되, 《說文解字》의 正字 중에는 분명 古文과 籀文으로부터 온 글자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說文解字》의 일반적인 體例는 段玉裁의 주장처럼, 古文·籀文이 小篆과 다른 경우엔 古文·籀文을 구분해 두었지만, 古文·籀文의 글자가 小篆과 같은 경우와 小篆엔 있으나 古文·籀文엔 없는 글자의 경우에는 더 이상 書體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두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古文·籀文에만 있고 小篆에 없는 글자의 경우엔, 小篆 뒤에 古文·籀文을 덧붙여두는 體例를 따를 수도 없는데다가, 그렇다고 古文·籀文을 버려서 수록치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說文解字》에는 매 글자마다 각기 “이건 古文이다”, “이건 籀文이다”, “이건 小篆이다”라고 주석을 달아 주는 體例도 없었으니, 필시 이런 글자들, 즉 古文·籀文에만 있고 小篆에 없는 글자들은 아예 이를 《說文解字》의 正字로 삼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說文解字》〈敍〉에서 “이제 小篆을 나열하며 古文과 籀文을 합쳐두었다”고 말한 것은 응당 正字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지 重文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다. 重文에 있는 古文·籀文은 古文·籀文이 小篆과 다르거나, 古文과 籀文이 서로 달랐던 것들이다. 正字로 쓰인 古文과 籀文은 古文·籀文·小篆이 모두 해당 글자를 갖추고 있었거나, 小篆엔 없고 古文·籀文에만 있었던 것이다. 《說文解字》 전체 중 經傳³⁹⁾을 인용하여 글자를 설명하는 경우엔 대개가 두 번째 경우, 즉 小篆은 없고 古文·籀文만 있었던 경우에 속하는 것이다. 무릇 正字 설명에 《詩》·《書》·《禮》·《春秋》를 인용한 경우는 그 正字가 古文임을 알 수 있고,

39) 여기서 ‘經傳’이란 뒷 문장의 내용에 근거해 볼 때, 일반적으로 經書로 지칭되는 六經 이외에도 文字學 책들, 즉 《史籀篇》, 《蒼頡訓纂》, 《凡將篇》, 《訓纂篇》까지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이런 책들도 四部分類로 보면, 經部 小學類에 포함된다.)

《史籀篇》을 인용한 경우는 그 正字가 籀文임을 알 수 있으며, 杜林이나 司馬相如나 揚雄의 주장을 인용한 경우는, 응당 杜林의 《蒼頡訓纂》⁴⁰⁾, 司馬相如의 《凡將篇》⁴¹⁾, 揚雄의 《訓纂篇》⁴²⁾ 등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 正字가 小篆임을 알 수 있다. 비록 《說文解字》의 모든 글자 중 이렇게 설명된 경우는 열의 하나도 되지 않지만, 그 大略의인 모습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즉 《說文解字》는 사실 古文·籀文·小篆을 합쳐져서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다. 옛 사람들 중 간혹 《說文解字》의 正字가 모두 小篆이며, 古文·籀文은 그저 重文 중에 보일 뿐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었으나,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何則? 如段君之說, 必古·籀所有之字, 篆文皆有而後可. 然篆文者, 秦并天下後所制定之文字. 秦之政治文化皆有自用而不徇人, 主今而不師古, 其易籀爲篆, 不獨有所省改, 抑且有所存廢. 凡三代之制度名物, 其字僅見於六藝, 而秦時已廢者, 李斯輩作字書時必所不取也. 今蒼頡三篇雖亡, 然足以窺其文字及體例者, 猶有《急就》一篇. 其文字皆蒼頡中正字. 其體例先姓名, 次諸物, 次五官, 皆日用必需之字, 而六藝中字十不得四五, 故古·籀中字, 篆文固不能盡有, 且蒼頡三篇五十五章, 章六十字, 凡三千三百字. 且尚有復字, 加以揚雄《訓纂》亦祇五千三百四十字, 而《說文》正字多至九千三百五十三, 此四千餘字者, 許君何自得之乎? 曰: 此必有出於古文·籀文者矣. 故《說文》通例, 如段君說: 凡古·籀與篆異者, 則出古文·籀文. 至古·籀與篆同, 或篆文有, 古·籀無者, 則不復識別. 若夫古·籀所有, 而篆文所無, 則其不能附之於篆文後, 又不能置而不錄, 且《說文》又無於每字下各注“此古文”·“此籀文”·“此篆文”之例, 則此種文字, 必爲本書中之正字審矣. 故《敘》所云: “今敘篆文合以古·籀”者, 當以正字言, 而非以重文言. 重文中之古·籀乃古·籀之異於篆文及其自相異者. 正字中之古·籀則有古·籀·篆文俱有此字, 亦有篆文所無, 而古·籀獨有者, 全書中引經以說之字, 大半當屬此第二類矣. 然則《說文解字》實合古文·籀文·小篆爲一書. 凡正字中其引《詩》·《書》·《禮》·《春秋》以說解者, 可知其爲古文, 其引《史篇》者, 可知其爲籀文, 引杜林·司馬相如·揚雄說者, 當出《蒼頡》·《凡將》·《訓纂》諸篇, 可知其爲篆文. 雖《說

40) 杜林은 西漢 末葉의 학자로, 《蒼頡訓纂》을 지었고 따로 《蒼頡故》를 짓기도 했다. 두 책 모두 모두 李斯의 《蒼頡篇》에 대한 해설서이다.

41) 司馬相如是 西漢 初葉의 文人으로 識字教本인 《凡將篇》을 지었다.

42) 揚雄은 西漢 末葉의 학자로, 그는 識字教本인 《訓纂篇》 외에도 제목이 杜林의 책 이름과 같은 《蒼頡訓纂》을 짓기도 했다.

文》諸字中有此標識者，十不逮一，然可得其大略。昔人或以《說文》正字皆篆文，而古文·籀文惟見於重文中者，殆不然矣。⁴³⁾

段玉裁의 《說文解字》體例 분석에 대해 王國維가 가한 修正을 더해 표로 정리해 보자면, 《說文解字》의 正字는 古文·籀文·小篆이 모두 쓰였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古文·籀文이 小篆과 다른 경우	小篆 뒤에 古文·籀文을 덧붙임.
② 古文·籀文이 小篆과 같은 경우 / 小篆엔 있으나 古文·籀文엔 없는 경우	書體 구별 없음.
③ 古文·籀文에만 있고 小篆에 없는 경우	古文·籀文을 正字로 삼음.

여기서 ③은 段玉裁가 전혀 언급치 않았던 王國維만의 독창적인 주장이다. 주의할 것이 王國維의 독창적인 분석에 따르면 ③은 《說文解字》의 正字 9,353字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00餘字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체례’(通例)라는 점이다. 이는 ①과 거의 비등한 수준의 수량이며, 이러한 자신만의 결과를 근거로 王國維는 앞서 段玉裁의 體例 정리가 탁월하긴 해도 “여전히 《說文解字》를 완전히 통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것이다.

1) 王國維 修正의 지향점

위에 보이는 王國維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史籀篇》과 籀文에 대한 그의 독특한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 따르면 《史籀篇》은 周宣王 때 太史 벼슬의 籀란 인물이 지은 책이며, 《史籀篇》의 字形이 籀文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王國維는 《史籀篇疏

43) 王國維, 《觀堂集林》卷7 〈藝林〉7(王國維, 謝維揚·房鑫亮 主編, 《王國維全集》第8卷, 浙江教育出版社·廣東教育出版社, 2010.) 205-207쪽.

證》〈叙錄〉이란 글에서 일반적으로 人名으로 이해되고 있는 ‘籀’가 사실은 太史의 이름이 아니라, ‘抽·繇·紬’와 마찬가지로 ‘소리내어 읽다’(讀)란 동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존하는 《急就篇》이 “急就奇觚與衆異”(기이한 簡牘조차 빠르게 익힐 수 있는 것이 다른 책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네)云云한 자신의 맨 앞 첫 구절에서 ‘急就’란 이름을 따왔듯이, 《史籀篇》 역시 그 첫 구절이 “太史籀書……”(太史가 書簡을 읽다……) 씬으로 시작하는 데에서 그 이름을 따왔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같은 논리로 그는 《流沙墜簡》에서 보이는 3글자 “蒼頡作□……”(蒼頡이 □를 만들어……)만을 보고, 이것이 《蒼頡篇》 맨 앞의 첫 구절이며 아마도 “蒼頡作書……”(蒼頡이 글자를 만들어……)로 시작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리고 《蒼頡篇》이란 이름 역시 여기서 취했을 것이라며, 이를 자기 주장의 傍證으로 제시했다.⁴⁴⁾

물론 추정이지만 만약 그의 주장대로 풀자면, “皆取史籀大篆” 중 “史籀大篆”의 해석은 옹당 “太史 籀의 大篆”이 아니라 “《史籀篇》의 大篆”이라 푸는 것이 맞다. ‘史籀’를 ‘太史 籀의 大篆’으로 풀지 않은 이는 王國維를 처음으로 꼽아야 할 것이다. 王國維는 《史籀篇疏證》〈叙錄〉에서 2가지 의문⁴⁵⁾에 대한 부정적인 추정⁴⁶⁾과 3가지 斷定⁴⁷⁾으로 《史籀篇》의 體

44) 그가 죽은지 3년 뒤 발굴된 居延의 木簡에서 실제로 “蒼頡作書，以教後詣”(蒼頡이 글자를 만들어 後人들을 가르쳤다.)란 구절이 발견되면서 그의 이러한 추정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쓰지 데쓰지, 앞의 책, 56-60쪽 참고.

45) ① ‘史籀’가 人名인가? ② 전해지는 바로 太史 籀는 周宣王 때의 사람이라는 데 실제 《史籀篇》의 字形이 그 당시의 것인가?

46) 王國維는 첫 번째 의문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急就篇》이나 《蒼頡篇》의 作名 방법의 예를 傍證 삼아 《史籀篇》이란 이름도 옹당 그 책의 맨 앞부분이 “太史籀書”로 시작한 데서 취해 온 것이라고 추정했다. 두 번째 의문에 대해서는 籀文의 字形을 당시 대조가 가능한 周나라 시기 글자 字形과 비교해 보면 西周 末期인 周宣王 때가 아닌 東周(春秋時代와 戰國時代 사이)의 것이며 秦나라에서만 통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47) ① 《史籀篇》의 글자는 사실 따로 만들어진 書體가 아닌 점. ② 《史籀篇》에 실린 글자 수가 9,000餘字였다는 통설이 語不成說인 점. ③ 《史籀篇》의

制나 性格을 치밀하게 再構해 내고 있다.⁴⁸⁾ 그리고 이러한 그의 견해는 이후 〈戰國時秦用籀文六國用古文說〉을 통해 보다 폭넓은 근거를 보충해 더욱 단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籀文이 곧 大篆이며, 이는 西方文字, 즉 당초 西周의 것이던 文字가 면면히 戰國時代의 秦나라까지 계승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古文은 나머지 六國의 文字들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다.⁴⁹⁾(여섯 나라가 모두 秦나라의 동쪽에 위치했으므로 六國의 古文은 앞서 보인 西方文字에 상대되는 東方文字로 정의된다.)

이러한 지적을 염두에 두고, 다시 〈《說文》今敍篆文合以古籀說〉의 내용을 돌아와 보자. 《蒼頡》 3篇은 총 55章으로 매 章마다 60字로 되어 있어서 이를 합친다면 모두 3,300字가 되고, 여기에 揚雄의 《訓纂篇》에 나온 글자들까지 합한다 해도 5,340字에 불과하다. 게다가 《蒼頡》 3篇과 겹치는 글자도 있을 것이므로 실제 글자 수는 틀림없이 더 적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만약 9,353字에 달하는 《說文解字》의 正字가 모두 小篆에서 왔다면, “위에서 말한 5,000餘字를 뺀 近 4,000字에 달하는 글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레 제기된다. 결국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近 4,000字는 古文·籀文에만 있고 小篆에는 아예 없는 글자들이어서, 古文이나 籀文을 正字로 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說文解字》 〈敍〉에서 “이제 小篆을 나열하며 古文과 籀文을 합쳐두었다”는 설명은 小篆을 正字로 삼고 그 뒤에 古文과 籀文을 덧붙여 두었다는 말이 아니라, 《說文解字》의 正字에 小篆·古文·籀文을 並用했다는 말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王國維의 추정을 받아들인다면, 우선 과거 단일한 체계 안에서 이해되던 漢字의 字形 변천과정에서의 籀文과 古文이 共時的인 틀 안에서

체제는 《說文解字》와 같은 해설서가 아닌 《蒼頡篇》같은 단순한 識字敎本이었다는 점.

48) 王國維, 《史籀篇疏證》〈叙錄〉(王國維, 謝維揚·房鑫亮 主編, 《王國維全集》第5卷(浙江教育出版社·廣東教育出版社, 2010.) 5-8쪽.)

49) 王國維, 《觀堂集林》卷7 〈藝林〉7(王國維, 謝維揚·房鑫亮 主編, 《王國維全集》第8卷(浙江教育出版社·廣東教育出版社, 2010.)) 197-198쪽.

분리되어 秦나라의 西方 文字와 六國의 東方 文字로 갈려 대립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같은 변별은 단순히 中國文字學史에서 부분적으로 書體의 발전 경로를 수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中國學術史, 그 중에서도 특히 中國經學史에 있어서도 매우 큰 관점의 전환을 초래한다. 이 점은 王國維의 〈戰國時秦用籀文六國用古文說〉에서 주장한 다음과 같은 내용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그 구도가 보다 명확해 질 것이다.

秦나라가 古文을 隗멸했다는 내용은 史書에 명확히 실려 있지 않다. 실려 있는 것은 오로지 文字를 통일했고, 《詩》·《書》를 불태웠다는 2가지 사실 뿐이다. 六藝는 齊나라와 魯나라에서 유행하다가 趙나라와 魏나라에 까지 미쳤을 뿐, 秦나라에서는 거의 유행되지 않았다. 이는 마치 《史籀篇》이 동쪽의 六國에서 유행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경우다. 六藝는 東方文字로 쓰였기에, 漢나라 사람들은 六藝를 쓸 때 사용한 글자를 古文이라고 불렀다. 秦나라 사람들이 폐기한 글자와 불태운 책들은 모두 이런 글자나 이런 글자로 쓰인 것이었다. 이러한 六國文字가 바로 古文이다.

秦滅古文, 史無明文. 有之, 惟一文字與焚《詩》《書》二事. 六藝之書行於齊魯, 爰及趙魏, 而罕流布於秦, 猶《史籀篇》之不行於東方諸國. 其書皆以東方文字書之. 漢人以其用以書六藝, 謂之古文. 而秦人所罷之文與焚之書, 皆此種文字, 是六國文字即古文也.⁵⁰⁾

위의 인용문을 보면 王國維가 籀文/古文에 東方/西方文字라는 구분을 적용한 것은, 결국 六藝, 즉 六經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그가 보기에 六經은 주로 당초 동쪽 끝 齊나라와 그 옆의 魯나라에서 유행했고, 점차 중부지방인 趙나라와 魏나라까지 전파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六經을 기록한 글자는 바로 六國文字, 즉 古文이었다. 당초 西周末期인 周宣王 때의 글자로 알려진 籀文에 대해, 그는 여러 가지 논증을 통해 東周時期(春秋時代와 戰國時代 사이)의 문자임을 애써 논증했다.⁵¹⁾ 王國維의 주장처

50) 王國維, 《觀堂集林》卷7 〈藝林〉7(王國維, 謝維揚·房鑫亮 主編, 《王國維全集》第8卷(浙江教育出版社·廣東教育出版社, 2010.)) 197쪽.

51) 《說文解字》에서 말하는 ‘古文’이 - 許慎조차 착각하고 있었지만 - 殷周古

럼 籀文이 곧 大篆이고, 이것이 바로 小篆 직전의 秦나라 文字라고 인정한다면, 籀文에서 小篆으로 이어지는 秦나라 文字는 六經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잃고 만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레 小篆을 중심으로 한 經傳의 文字 解釋를 근거로 구축되었던 古文經學의 패러다임에 치명타를 가하게 된다. 다시 말해 그의 上述했던 여러 주장들이 유기적으로 합쳐지면서, 궁극적으로 기존의 인식체계, 즉 《說文解字》라는 古文經學 해석의 가장 중요한 작업틀(Framework)을 해체시켜 버리게 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小篆은 西方의 秦나라 글자이기에, 예부터 東方에서 유행하던 六經에 나오는 글자, 즉 古文에 해당하는 글자가 아예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古文經書를 해석하기 위한 着手處이자, 그 이상의 意味網과 권위를 확보해주는 일종의 ‘코스몰로지’로서의 《說文解字》가 강제로 무장해체를 당하고 마는 것이다.⁵²⁾ 결국 이러한 그의 주장은 甲骨文과 金文의 발굴과 이에 따른 새로운 연구 성과로 점점 위협을 받던 《說文解字》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애태우던 章太炎과 이를 추종하는 학자들의 입장과 맞닥뜨리게 된다. 古文經學을 근거로 排滿思想을 소리 높여 외치던 章太炎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묵묵히 스스로를 淸朝의 遺老라 되뇌던 王國維의 학술적 지향점이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⁵³⁾

문이 아닌 戰國時代 六國文字였다는 구체적인 지적은 <<說文>>所用古文說> 참고.(王國維, 謝維揚·房鑫亮 主編, 《王國維全集》 第8卷(浙江教育出版社·廣東教育出版社, 2010.) 203-205쪽.)

- 52) 《說文解字》를 하나의 ‘코스몰로지’로 간주하는 근거는 아쓰지 데쓰지, 앞의 책 중 <실문해자의 구성 -문자의 코스몰로지> 참고. 《說文解字》의 글자 설명이 古文經學에 어떤 의미작용을 하는 지는 김근, 앞의 책 중 <제2장 현대 경학의 훈고 담론>의 <제3절 탈신화의 결실: 실문해자> 참고.
- 53) 일반적으로 排滿思想과 대립하는 사상을 淸나라와의 연속성이나 滿洲族 등 異族에 대한 수용 입장을 가진 ‘五族共和’로 꼽는다. 크게 보면 王國維의 입장 역시 後者に 속한다. 排滿思想과 五族共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요코야마 히로야키(橫山宏章)의 《중국의 이민족 지배논리 — 중화민족의 탄생》(한울 아카데미, 2012.) 중 제1장, 제2장, 제3장 참고.

2) 王國維 修正의 得失과 反應

그렇다면 王國維의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현재 學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⁵⁴⁾ 籀文을 東周時期的 文字로 간주한 王國維의 주장에 대해, 斯界의 碩學 裘錫圭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며 籀文이 사실은 西周時期的 文字가 맞다는 점을 논증한다. 그가 보기에, 실제로 秦系文字가 西周末期的 《史籀篇》과 부합하는 바가 많은 이유는 秦系文字에 줄곧 改變이 적었기 때문일 뿐, 王國維가 말했던 것처럼 《史籀篇》이 東周時期, 즉 春秋戰國時期的 秦나라 사람이 지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단 王國維가 꼼꼼한 考證을 통해 古文을 戰國時期 六國의 文字라고 추정한 점만큼은 卓見으로 인정한다.⁵⁵⁾

王國維의 주장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反駁으로는 응당 潘重規의 〈《史籀篇》非周宣王時太史籀所作辨〉을 꼽아야 할 것이다.⁵⁶⁾ 潘重規의 이 글은 전문적으로 王國維를 겨냥해서 쓴 것으로,⁵⁷⁾ 너무 繁多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조목조목 實例를 들어가면서 王國維의 주장에 反駁을 가했다.⁵⁸⁾

그런데 이 같은 王國維의 주장에 대한 학계의 반응은, 현재까지 주로

-
- 54) 기본적으로 戰國時期 文字에 대한 王國維 研究成果의 간명한 개괄은 姚淦銘의 《王國維文獻學研究》(江蘇古籍出版社, 2001.) 중 第6章 第2節 〈戰國文字研究的先驅〉 참고.
 - 55) 裘錫圭, 李鴻鎮 옮김, 《중국문자학의 이해》(신아사, 2010.) 중 제4장 〈形體의 演變(상) — 古文字 단계의 한자〉 참고.
 - 56) 潘重規, 〈《史籀篇》非周宣王時太史籀所作辨〉, 《中國文字學》, 東大圖書, 民國72(1983).
 - 57) 潘重規는 자신이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王國維의 주장이 나오자, 기존의 古文·籀文·篆文 체계를 단박에 뒤집어버렸다. 최근 文字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王國維의 주장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를 두고 종종 한 시대의 획을 긋는 발견이라고 찬탄했다. 난 반복해서 연구하다가, 王國維의 주장이 사실과는 위배되며, 中國 文字의 傳承系譜의 실상을 크게 어지럽힌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辨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潘重規, 앞의 글, 205쪽.)
 - 58) 呂思勉 역시 《中國文字變遷考》의 〈續論古文籀篆〉에서 王國維 주장의 허점들을 상세히 지적한 바 있다. 呂思勉, 《文字學四種》(上海教育出版社, 1987.) 99-129쪽.

卓見으로 인정받고 있는, 古文이 戰國時期 六國의 文字라는 추정이나 현재 부정되고 있는 《史籀篇》이 西周 末期가 아닌 東周時期的 秦系文字라는 주장에만 집중될 뿐, 《說文解字》의 正字와 重文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현재 文字學史나 《說文解字》 重文 연구에는 王國維의 주장이 소개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분명 부정되고 있는 추세임에는 분명하다.⁵⁹⁾

V. 學術과 政治의 교차와 混淆

그렇다면 유독 〈《說文》今敍篆文合以古籀說〉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王國維의 《說文解字》 正字와 重文에 대한 未曾有的 주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이나 논쟁이 없었던 이유는 어째서일까? 거칠게나마 추정해보자면,

59) 물론 그렇다고 王國維의 《說文解字》 正字, 重文에 대한 독특한 관점 역시 계승자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대표적인 계승자로는 일찍이 清華大學 研究院에서 王國維에게 직접 배웠던 高亨을 꼽을 수 있다. 그는 〈《史籀篇》作者考〉에서, ‘史籀’를 ‘太史 籀’로 풀이한 許慎이나 班固를 위해 그들이 많이 틀렸던 것은 아니라며 그들이 오해하게 된 이유를 변명해주고 있다. 이를 얼핏 보면 오히려 王國維의 주장과 반대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 全文을 잘 살펴보면 글의 論旨인 즉슨, 王國維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 상태에서 許慎이나 班固의 주장이 결국엔 착각이었음을 논증한 것이다.(高亨, 《文史述林》(《高亨著作集林》 第9卷, 清華大學出版部, 2004.) 446-450쪽.) 특히나 자신의 저작 《文字形義學概論》에서는 《說文解字》 正字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완전히 王國維의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高亨, 《文字形義學概論》(《高亨著作集林》 第8卷, 清華大學出版部, 2004.) 37-39쪽.) 그리고 王國維의 주장 중 확연한 오류가 발견되었건만, 王國維의 이러한 관점을 최대한 고치고 다듬어서라도 받아들이려는 시도도 현재까지 간간히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張世超의 〈今敍篆文, 合以古籀考〉에서는 王國維의 “小篆이 秦代 籀文을 생략하거나 고쳐서 만들어진 글자라는 주장은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제 小篆을 나열하며 古文과 籀文을 합쳐두었다(今敍篆文, 合以古籀)에서의 ‘합치다(合)는 ‘첨부해 두었다(附合)는 뜻이 아니라 ‘뒤섞여있다(摻合)는 뜻’이라는 王國維의 입장을 여전히 견지한다.(張世超, 〈今敍篆文, 合以古籀考〉(《古代文明》 第7卷 第1期, 2013.) 83-84쪽.)

이는 王國維라는 사람과 그의 학술적 성향, 그리고 그의 정치적 입장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文字學이라는 잣대만을 가지고 王國維의 주장 중 文字學 자체에 비교적 깊은 영향을 끼친 부분들에만 집중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방식은 中國 文字學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동시에 王國維가 당초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동기와 그의 學術 全貌를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데에는 확연한 한계를 가지게 된다. 단적인 예로, 애당초 王國維가 굳이 간접적인 ‘情況證據’만으로 西周 末期 周宣王 때 太史 籀의 존재를 부정하고 《史籀篇》의 ‘籀’를 人名이 아닌 ‘읽다’(讀)는 동사로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史籀篇》이 東周時期的 秦系文字를 대표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秦나라는 당초 周나라의 변방에서 戎狄를 막기 위한 일종의 防壁 역할을 맡고 있던 遊牧의 전통을 가진 非華夏系 小國이었다.⁶⁰⁾ 이러한 사실은 秦나라의 문화가 嫡傳 華夏系의 문화와는 상당히 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說文》 今敍篆文合以古籀說>이나 이와 관계된 王國維의 주장들 역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六經으로 대변되는 東方文字(六國文字)와 이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西方文字(秦系文字)를 명확히 변별하고, 다시 이를 근거로 《說文解字》의 9,353字의 유래를 크게 六國文字인 古文과 秦系文字인 籀文·小篆으로 나누어 재설정하면서, 기존의 이해와 전혀 다른 正字와 重文의 體例를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1911년 中華民國 建立과 함께 공식적으로 滿洲族의 清朝가 멸망했지만, 계속해서 거세져만 가는 華夏系, 즉 漢族 중심 民族主義의 根底에서 排他的인 中華文明의 정체성을 증명·강화해주고 있는 古文經學⁶¹⁾과 그 古文經學의 入門處인 《說文解字》의 권위에 대한 은근

60) 王國維는 “秦나라의 先祖는 戎狄 중에서 생겨났다.”(秦之祖先, 起於戎狄)고 여겼다.(王國維, 謝維揚·房鑫亮 主編, 《王國維全集》 第8卷, 浙江教育出版社·廣東教育出版社, 2010, 352쪽. 秦나라에 대한 王國維의 기본적인 이해는 <秦都邑考>, <秦郡考>를 참고.) 秦나라의 源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何光岳, 《秦趙源流史》(江西教育出版社, 1994.)를 참고.

61) 清朝末葉 變法自強 등 체제내 개혁운동을 주도하던 今文經學派는 中華民國이

하면서도 근본적인 반박이었다.

王國維의 이러한 성향은 다른 그의 文字學 - 古代史 연구에도 여실히 보인다. 예를 들어 《觀堂集林》만 놓고 봐도, 중국 주변 민족과 지리에 대한 관심⁶²⁾, 東夷系인 商나라의 祖上 ‘夔’(=帝俊=帝嚳=夔)에 대한 발견(〈殷卜辭所見先公先王考〉·〈殷卜辭所見先公先王續考〉), 東夷系인 殷나라와 華夏系인 周나라 制度의 相異性 강조(〈殷周制度論〉) 등은 결국 그 전까지 中國 古代史를 華夏系의 단일계보로 상상하던 전통적인 인식을 거부하고, 華夏系와 東夷系가 浮沈을 거듭하며 共存해 왔음을 論證한 것이다.

王國維의 이 같이 다각적인 論證들은, 궁극적으로 당시 極盛하던 漢族 중심 民族主義를 근본부터 해체시키고, 中國은 원래부터 다양한 민족들이 공존하던 공간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고에서 살펴본 〈《說文》今敍篆文合以古籀說〉 역시 이제는 정치적 성분이 탈색되고 文字學에서의 是非得失만을 따지게 되었지만, 당초엔 정확히 이러한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을 확실히 하는 것은 당초 王國維가 이러한 주장들을 제기한 所以然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王國維의 주장을 繼承·變容한 論議들의 起源과 變遷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王國維는 〈殷周制度論〉을 완성한 뒤 羅振玉에게 보낸 편지(1917.9.13)에서 다음과 같이 自負했다.

이 글(〈殷周制度論〉)은 考證을 한 글이지만, 세상을 經綸하려는 뜻을 담아 두었으니, 가히 顧炎武 선생의 시도에 비길만하다고 하겠습니다.

此文於考據之中，寓經世之意，可几亭林先生。⁶³⁾

건국된 이후로는 주로 中國傳統學術의 개혁에 역량이 집중되는 추세였다. 이러한 역량의 집중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 바로 앞서 언급했던 〈古史辨〉(1926~1941)派, 즉 疑古派다.

- 62) 中國 邊防이나 異族들에 대한 관심은 沈曾植이나 羅振玉 등 王國維가 가까이 했던 清朝遺老들의 전형적인 특성이었다. 이와 관련된 글들은 《觀堂集林》중 특히 史林5·6·10에 많다.

王國維가 감히 당시 학자들이 “天崩地覆”라고 체감하던 격변기, 즉 明末清初에 憤然히 일어나 考證을 통해 세상의 經綸을 논했던 顧炎武와 자신을 對比한 것이 결코 우연하거나 일시적인 발상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經綸하려는 뜻” 역시 단지 〈殷周制度論〉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觀堂集林》, 더 나아가 王國維의 다른 著述들에게까지 두루 투영되고 있는 바이며, 王國維 學術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에도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References>

- Atsuiji Tetsuji. Sim Gyeongho(Trans.). *Hanjahag: Seolmunhaejau Segye (Philology of Chinese Characters: The World of Shuwenjiezi)*. Seoul: Bogosa, 2008.
- Chen Meiyang & Chen Liuqiu(Eds.). *Chenyikeshiji & Tanyunshicun(The Collected Poems of Chenyike & The Collected Poems of Tanyun)*. Beijing: Qinhua daxue chubanshe, 1993.
- Gao Heng. *Gaghengzhuzuo jilin Di8juan(The Selections from Gagheng's works Vol.8)*. Beijing: Qinhua daxue chubanshe, 2004.
- Gao Heng. *Gaghengzhuzuo jilin Di9juan(The Selections from Gagheng's works Vol.9)*. Beijing: Qinhua daxue chubanshe, 2004.
- Gu Jiegang(Eds.) *Gushibian Di1ce(Discriminating the Archaic History Vol.1)*. Shanghai: Shanhaigujichubanshe, 1982.
- He Yueguang, *Qinzhao yuanliushi(The Origins and History of Qin and Zhao)*. Nanchang: Jiangxijiaoyuchubanshe, 1994.
- Hong Guoliang. *Wanguoweizhushubianniantiyao(The Chronic Abstracts*

63) 王國維·羅振玉, 王慶祥·蕭立文 校注, 《羅振玉王國維往來書信》(北京: 東方出版社, 2000.) 290쪽.

- for *Wangguowei*' works). Taipei: Da'anclubanshe, 1989.
- Jiang Jujian. *Shuowenjieyizongheyanjiu*(A Comprehensive Study on *Shuowenjiezi*). Taizhong: Donghaidaxue, 1970.
- Kim Jayeong. *Wanguowei Lianmianzipu Yeongu: Hangugeo Yeonm yeonjui Yonglyeleul Jungsimeulo*(A Study on *Wanguowei's Lianmianzipu: Focus on Korean Disyllabic Words*). Master's thesis. Konkuk Univ., 2009.
- Kim Jeongok. *Wanguowei Yeongu: Gomunjahag, Goseogeul Jungsimeulo* (A Study on *Wanguowei: Focus on Palaeography and Interpretation*). Master's thesis. Myongji Univ., 1994.
- Kim Keun. *Hanjaneun Juggugeul Eotteohge Jibaehaessneunga*(How Chinese Characters control China). Seoul: Mineumsa, 1999.
- Kim Liuyuan. *Seolmunhaeja Jungmun Yeongu*(A Study on Variant Chinese Characters in *Shuowenjiezi*). Dissertation. Hanyang Univ., 2009.
- Lin Zhihong. *Minguonaidiguoye: Qingyiminyujindaizhongguozhengzhi wenhuadezhuanbian*(The Republic of China is My Enemy: Qing Loyalist and The Change of Political Culture in Modern China). Dissertation. Taiwan Univ., 2005.
- Liu Mengxi(Ed.). *Zhongguoxiandaixueshujingdian - Dongzuobinjuan*(The Selections from *Dongzuobin's Works*). Shijiazhuang: Hebeijiao yuchubanshe, 1996.
- Liu Yinsheng, Yuan Yingguang(Eds.). *Wanguoweiquanji - Shuxin*(The Selections from *Wanguowei's Letters*). Beijing: Zhonghuashuju, 1984.
- Lü Simian. *Wenzixuesizhong*(Four Studies of Chinese Characters). Shanghai: Shanghaijiaoyuchubanshe, 1987.
- Oh Cheolsuk. *Zhangbinglin Jeongchisasang Yeongu - Minjogjuuleul Jungsimeulo*(A Study on *Zhangbinglin's Political Thought - Focus*

- on Nationalism*). Dissertation. Chungnam Univ., 2005.
- Pan Zhonggui. *Zhonguowenzoxue(Philology of Chinese Characters)*. Taizhong: Dongdatushu, 1983.
- Qiu Xigui. Lee Hongjin(Trans.). *Junggumunjahagui Ihae(Understanding of Chinese Characters)*. Seoul: Shinasa, 2010.
- Quan Xuanton, Zhu Xizu & Zhou Shuren. *Zhantaiyanshuwenjiezi shoukebijī(The Lecture Book of Zhangtaiyan's Shuowenjiezi study)*. Beijing: Zhonghuashuju, 2010.
- Ryu Changgyo. *Wangguyopyeongjeon(A Biography of Wangguowei)*. Kyeongsansi: Yeongnamdaehagchulpanbu, 2005.
- Shi Juanru. *Wanguoweidezhenzhisixiang(Wanguowei's Political Thought)*. Master's thesis. Xibei Univ., 2004.
- Wang Guowei. Kwon Yongho(Trans.) *Songwonhuigogsa(History of the Song and Yuan Drama)*. Seoul: Haggobang, 2007.
- Wang Kezhi(Eds.). *Sunqingyilaodeminguosuiyue(Qing Loyalist in Republic Period)*. Nanning: Guangxirenminchubanshe, 2008.
- Wang Ping. *Shuowenchongwenyanjiu(A Study on Variant Chinese Characters in Shuowenjiezi)*. Jinan: Huadongshifandaxuechubanshe, 2008.
- Xiao Ai. *Wanguoweipingzhuan(A Biography of Wangguowei)*. Hangzhou: Zhejiangwenyichubanshe, 1983.
- Xie Weiyang & Fang Xinliang(Eds.). *Wanguoweiquanji Di5juan(Wang guowei's Complete Works Vol.5)*. Hangzhou & Guangzhou: Zhejiangjiaoyuchubanshe & Guangdongjiaoyuchubanshe, 2010.
- Xie Weiyang, Fang Xinliang(Eds.). *Wanguoweiquanji Di8juan(Wang guowei's Complete Works Vol.8)*. Hangzhou & Guangzhou: Zhejiangjiaoyuchubanshe & Guangdongjiaoyuchubanshe, 2010.
- Xu Shen. Duan Yucui(Annotation). *Suowenjieyizhu(Annotated Suowen*

- jiezi). Nanjing: Fenghuangchubanshe, 2007.
- Yao Ganming. *Wanguoweixianxueyanjiu(Wanguowei's Study of Philology)*. Nanjing: Jiangsugujichubanshe, 2001.
- Yokoyama Hiroaki. Lee Yongbin(Trans.). *Junggugui Iminjong Jibaenolli - Junghwaminjogui Tansaeng(The Birth of Chinese Nation)*. Paju: Hanul Academy. 2012.
- Zhang Binglin(Zhang Taiyan). *Xiaoxuwenda(The Catechism of Chinese Linguistics)*. Taipei: Wenhaichubanshe, 1971.
- Zhang Lianke. *Wanguoweiyuluozhenyu(Wanguowei and Luozenyu)*. Tianjin: Tianjinrenminchubanshe, 2002.
- Zhang Taiyan. Pan Jun & Guo Chengyong(Annotation). *Guogulunheng shuzheng(Annotated Guogulunhengshuzheng)*. Beijing: Zhonghua shuju, 2008.
- Zhang Taiyan. *Zhangtaiyandebaihuawen(Zhangtaiyan's Writings on Spoken Chinese)*. Taidongtushuju, 1927.
- Zhao Wanli. *Wangjianxiangshengguoweinianpu(The Chronicle of Wanguo wei)*. Taipei: Taiwanshangwuyinshuguan, 1978.
- Zhou Mingzhi. *Jindaizhongguodewenhuawei: Qingyilaodejingshenshijie (Cultural Crisis in Modern China: Qing Loyalists and Their World)*. Jinan: Shandongdaxuechubanshe, 2009.
- Chen Wei. "Yinshengqiuyizhilishiyangejiqituichan"(A Review of Inference Meanings from Sounds). *Sichuanjiaoyuxueyuanxuebao(Journal of Sichuan College of Education)* 27.10 (2011): 63-66.
- Kim Jonghyeon. "Wanguoweiyi Hyeonsilinsig - Geu Ilsaengui Jugaeg chejeog Jogeoneul Jungsimeulo"(Wanguowei's Actual Understanding). *Jungguginmungwahag(Journal of Chinese Humanities)* 5 (1986): 191-215.
- Lee Kangbum. "Wanguoweiyi Jugeumeulo Bon Chenyinquewi Munhwa

- bonwilon”(Chenyinque’s Cultural Conceptualization in Light of Wangguowei’s Death). *Junggugeomunhagnonjib(The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24 (2003): 593-625.
- Lee Youngsub. “Zhongyuanyinyun, Gogunseoeseo Unseolo - Quanxuan tongui Zhongyuanyinyun Yeonguui Uimi”(Zhongyuanyinyun, From a drama rhyme dictionary to a rhyme dictionary - A review of Quanxuantong’s study in ZhongYuanYinYun). *Junggugeomunhagnonjib(The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48 (2008): 259-286.
- Oh Sanghun. “Wangguoweisogo - Geuui Jijeogyojeonggwa Jongmal”(A Short Study on Wangguowei). *Busansahag(The Busan Historical Review)* 30 (2006): 787-799.
- Peng Yuping. “Wangguowei, Chenyinkewenhuayiminxintaibianxi”(An Analysis on the Mentality of Wangguowei and Chenyinque). *Guangzhoudaxuexuebao(Shehuikexuban)(Journal of Guangzhou University (Social Science Edition))* 10.1 (2011): 77-81.
- Zhang Shichao, “Jinxuzhuanwenheyigukaokao”(A Study on ‘Jinxuzhuanwenheyigukao’). *Gudaiwenming(The Journal of Ancient Civilizations)* 7.1 (2013): 78-84.

<Abstract>

As everyone knows, Wang Guowei(王國維) was one of the great scholars in modern China, who was very erudite. He was very accomplished in literature, philosophy, grammatology, and ancient history. Often, people pay attention to his scholarly accomplishments, but forget the fact that he was a representative Qing loyalist. This kind of approach hinders us

from understanding the complete picture of his scholarship.

Rereading his “*Shuo Wen Jinxuzhuanwenheyiguzhoushuo*”(《說文》今敍篆文合以古籀說), this paper reassesses his original analysis of *Shuowenjizi* (《說文解字》). Wang represented an objection against the established analysis. Especially, he did not agree on the established opinion that Xiaozhuan(小篆)s are main entries and Guwen(古文)s and Zhouwen(籀文)s are appended in the later parts. He thought that almost half of 9,353 characters in *Shuowenjizi* have just *Guwen and Zhouwen*, having no *Xiaozhuan*. Without total analysis of political situation of his time, currents of scholarly world, and his political disposition, this standpoint of his in grammatology cannot be understood properly. So, this paper shows that his political stance as a Qing loyalist exerted what kind of influence on his scholarly assertions, through considerations on his disposition revealed in “*Shuo Wen Jinxuzhuanwenheyiguzhoushuo*.” And this is also a proof that understanding about his other astonishing scholarly accomplishments needs the same approach.

Key Words : 清朝遺老(Qing loyalist), 王國維(WangGuoWei),
 〈《說文》今敍篆文合以古籀說〉(“*Shuo Wen Jinxuzhuanwenheyiguzhou shuo*”), 中國近代學術(Modern chinese scholarship),
 時宜性(Timely inclination), 古文字學(Palaeography)